



임호균
반론보도닷컴 편집인

BB리포터, 기업 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제대로 알려 나아갈 것

그동안 한국광고주협회는 우리 경제 및 기업 활동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매체의 저널리즘 이탈 행위를 지적하고 공개하는 등 건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체환경에 대한 자성적 성찰을 통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과 인터넷신문 시행령 개정 등 유사언론폐해 근절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매체의 비정상적인 광고수주 방식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수주에 따라 논조를 바꾸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왜곡된 저널리즘과의 충돌은 여전히 큰 고민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전히 유사언론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무려 76.2%가 기사를 빌미로 한 협찬 및 광고 강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국내의 경기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언론행위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광고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저널리즘의 이탈은 정상적인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광고시장을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인터넷매체인 반론보도닷컴과 함께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 강요와 기사 어뷰징 등으로 인한 왜곡된 기업 정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업 홍보담당자들이 참여한 '기업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단(BB리포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BB리포터들은 직접 현장에서의 취재를 통해 ▲경제 및 기업 오보·왜곡기사에 대한 반론 ▲창의적 기업 활동 촉진 ▲기업 CSR 홍보 등 기업 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아갈 방침입니다.

우리 경제 및 기업의 활력과 건강한 저널리즘 확립을 위하여 협회 및 반론보도닷컴의 BB리포터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